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의 실용 학문과 대학교양교육의 관계적 가치

박보영*

- I. 서론
- II.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의 적응을 위한 대학교양교육
- III. 플랫폼 노동시장과 탈근대적 가치를 포함한 교양교육의 필요성
- IV.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와 교양교육의 가치
- V. 결론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이해하고자 대학교양교육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제 대학교양교과에서도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용 학문 분야의 학술 내용이 교육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되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실용 학문에 기반을 둔 대학교양교육은 단순히 직무적 기술만을 익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 구조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 중심의 인문학적 의미를 함께 사

* 서일대학교 스마트경영학과, 조교수, owem35@empas.com

하는 관계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시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교양교육은 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현시점은 실용 학문 및 기초 학문이 서로 관계를 맺는 탈근대적 가치를 포함한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 하겠다.

주제어 ● 유연화된 노동시장, 실용 학문, 인문학, 대학교양교육, 관계적 가치

I. 서론

일반적으로 대학은 사람들이 학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에 진입하기 전 최종적으로 거치게 되는 교육기관이다. 현재 대학교양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문학적 가치를 가르치는 다양한 교육커리큘럼을 마련해놓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추구했던 실용 학문 학습의 강조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그러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 해소하고자 인간의 보편적인 삶과 관련한 윤리교육을 시도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윤리교육은 대부분 인간의 일상적 삶에 관련된 이념과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현재 4차 산업혁명 속 시장경제에서 더욱 강화된 노동유연화 구조에 대응하는 지식의 학습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교육체계는 대부분 전공교육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직업군에 관계없이 본격적인 노동유연화 질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정보사회의 도래로 여러 가지 융합형 플랫폼 노동시장 구조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내부에 새로운 직업군들의 활동이 연결되고 있다. 이 노동구조에 대한 이해는 전공별 진출 가능한 직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학습과는 별개로 다른 내용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을 사람들이 인식

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인 대학교양교육에서 추구하는 체험형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 먼저 경험하여 그 심리적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지만,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학생들은 추후 자신이 활동하게 될 노동구조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과거 전공교육과는 달리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 지식 학습체계로서 노동구조 및 그에 따른 사회 윤리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습 내용은 직업이 지닌 사회적, 과학적 가치에 대해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볼 때 비로소 그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짐을 보여준다. 그리고 학습자는 상상력과 정서적 통찰력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얻게 된다(김성원, 2012, 61-62; 손승남, 2011, 219-220).

이 같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근래 대학을 마치고 노동시장 구조에 편입된 청년들의 실업이 증가하면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이 수요자의 학습 욕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 실용성이 교양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김현정, 2012; 배을규 외, 2003; 손동현, 2002; 송유진, 2009; 오은주, 2012; 이성원, 2012, 47; 정기섭·장영수, 2008; 최광제·김장원, 2011).

하지만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현재의 대학교양교육이 실용 학문으로 전이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로의 적응, 또는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가치합리성에 대한 고찰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및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을 더 보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시장 구조 내 기업 경영인들은 이미 대학생들이 실용적 지식과 기술보다는 현실에 부합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를 바라며, 직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성실, 책임, 의사표현력, 추진력, 조직 적응력 등 현실적응 역량 함양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대학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김현정, 2012; 양승실 외, 2006; Business-Higher Education Forum, 1995). 학습자가 현재의 시장 구조와 연계한 학습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익히

게 된다면 인간의 본질적 습관과 본성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이 가능할 것이다(김성원, 2012).

대학교양교육 체계가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에 대응하려면 여러 윤리적, 제도적, 법제적 내용과 관련한 학습체계를 준비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다. 즉 이 같은 교육은 실용 학문적 성격을 지닌 대학교양교육이 곧 직업교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장경제에서의 노동유연화 구조에서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된 실용지식 교육이 아닌 새로운 사회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주체적인 대처에 필요한 실용 학문의 방향성과 함께 이 학문적 내용과 연결되는 대학교양교육의 관계적 가치의 구현이 중요함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적용을 위해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 새롭게 분기하는 노동시장 구조 내에서의 인문학 학습의 필요성과 노동자로서 생활하게 되는 인간 삶의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인문학의 가치와 의미를 논의하고, 새롭게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과 그 체계 내에서의 인간 적응을 위한 교양교육의 가치를 개관하고자 한다.

II.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의 적응을 위한 대학교양교육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 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업의 경영조직, 산업구조 등의 변화를 주요 담론 주제로 선택한다. 즉 사용자의 경영적 판단만을 내세운다면 현재의 급속한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건전한 생산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경영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과 관련한 사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은 기업의 경영 질서에 의하면 하나의 비용이자 손실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존망과 관련하여 대립적 노사관계가 중요함은 당연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시장에 진출하여 노동자로서 일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그들의 고용과 관련한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과 근로 조건, 사용자와의 의사소통 관계 등에 대한 학습은 실제 그들의 생활을 결정짓는 매우 주요한 교육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학습은 대부분 소위 실용 학문체계로 명명되는 교과에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매번 인문학적 관점에서만 실용 교양학문의 무의미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현재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이 대학 졸업 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들의 직장생활에 반영되고, 또한 갈등 없이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기능교양교과적 학습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교육성과는 지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학교양교육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사회에 진출한 인간이 실제 시장 구조에 필요한 인재로서 성장하도록 돕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관련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이다(김현정, 2012, 85-86).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시스템화된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실용적 측면의 교양교육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실용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따라 해당 학습 범위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한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 중에서 노동 영역과 현재의 시장 구조가 합쳐진 이 환경적 특성을 지닌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학습은 추후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실용성을 갖춘 대학교양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식영역의 학습을 통해 대학생들은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로의 적응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된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대학에서 실용 학문적 성격을 띤 학술 지식의 전달체계가 노동시장 구조로의 편입에 필요한 기술교육만을 시도하게 된다면, 지식정보사회에서 추구하는 문화적 특성에 대응하는 기초역량의 배양은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학습하는 기존 주입식 지식의 양과 종류가 현재의 사회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의 정보통신기술과 온라인 공간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로의 적응과 관련하여 기존 교육체계 중 무엇이 무의미해졌고, 어떤 지식이 새

롭게 재창출되고 활용되기 위해 변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자 간 또는 교육자와 학습자 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기초역량의 기반 위에서 진정한 의미의 대학교양교육 내용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김현정, 2012; 백도형, 2010, 72).

한편 이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로의 적응을 위해 대학교양교육은 노사를 중심으로 그 관계의 본질과 관련한 인문학적 학습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단순히 법적, 제도적 측면의 고용과 해고의 질서 외에 인격적 관계 형성과 직업의 자아실현적 의미 등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철학 연구가 대학교양교육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등 실용, 응용학문으로 대표되는 학문 영역에서 최근 윤리, 도덕, 규범, 환경, 인권 등과 관련한 인문학적 논의가 꾸준히 제시되는 것은 바로 직업 구조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격 및 자아 형성의 수단으로서 존재함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근로관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는 단순히 임금과 노동력 제공이라는 계량적 관계를 넘어 그 이면에는 인간이 생활하면서 인식해야 할 근원적인 철학적 가치가 내재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대사회의 인간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한 ‘자유(freedom)’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논의까지 시도될 수 있다. 여전히 대학교양교육은 이러한 가치들의 학습을 위한 인문학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고 주체의 환경적 측면이 노동시장 구조이며, 그와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응용학문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실용 학문과 대학교양교육 체계의 연계적, 관계적 지식이 합쳐져야만 관련 현상과 사건이 원활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 해석을 통해 사고 주체인 노동자 개인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업조직 내 구조와 관계에 대한 학습은 이미 대학 내 인격 형성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 방식이 정보통신기술 등에 의해 산업화되면서 기존 시장경제에서 종속적 위치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욱 보호받기가 어려워졌다.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해온

획일적인 노동자의 모습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사용자 역시 사업체 규모, 임금수준, 각종 혜택 등이 합쳐진 사회적 보호가 지닌 가치를 자사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맞춤형 노동시장의 성립으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법 체계에서 확립된 명령체계와는 또 다른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더 아우른다. 과거 노동법은 대부분 노사 간 갈등과 착취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 기술되었지만, 현재는 더 많은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법적 고찰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갈등 요인을 발생시키는 특성이나 업무의 효율성만이 강조될 때 어떤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창의성이 몰개성화되는 과정은 노사관계 심리와 관련한 인문학적 성과로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의 새로운 특성이 인간의 노동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영조직론적 분석 역시 대학 교양교과에 포함될 수 있는 교양지식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시장, 정보통신기술, 온-온프라인을 넘나드는 노동 형태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는 노사 간 관계성의 경우 대학교양교육을 위해 실용 학문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관계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변화된 노동시장 구조로의 적응을 위한 교육적 논의와 관련하여 실용 학문이 추구하는 직업교육훈련 중심의 운영체계에 대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더 폭넓은 학습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유기적인 교양교육을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기계적으로 분리하거나 무조건 하나의 영역으로 합치기보다는 학습 주제에 따라 교육자가 이들을 융합하거나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상황과 환경적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식으로 해당 교육체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용 학문이 추구하는 기존 직업훈련제도의 운영, 지원, 훈련 관련 교육과 함께 변화된 노동시장의 조건을 설명하는 이론적, 철학적, 인문학적 윤리교육을 병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분리하여 주제별 이원적 교양교육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실용 학문의 대학교양교육 체계로의 편입은 사회적 필요

성만큼이나 교육자 간 신중한 소통과 학술적 합의가 요구된다. 견고하게 구축된 교육구조의 경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생산적인 선순환적 지식을 새롭게 유입시키는 과정은 결국 인간 중심적 사고의 기존 인문학이 추구하는 교양교육 내용에 기반을 둔다. 대학교양교육 영역에서 기초학문 분야에 기반을 둔 전통적 인성교육 내용이 현재 실용 학문이 추구하는 응용적 지식체계와 결합되려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의 확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시공간이 바로 인간이 본원적으로 생활하는 생활영역이기 때문이다.

III. 플랫폼 노동시장과 탈근대적 가치를 포함한 교양교육의 필요성

현대사회를 이끈 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공간에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인터넷은 노동시장 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켰으며, 노동자와 자본가를 매개하는 고용 및 취업 형태를 바꿔놓기도 했다. 온라인 공간의 창출로 새롭게 나타난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플랫폼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이었다.

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시장 구조는 서비스 제공 형태와 과업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된다.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 수행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웹(web) 기반 플랫폼 노동과 오프라인 호출형 노동시장 구조라 할 수 있는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으로 구분 가능하다(ILO, 2018). 웹 기반 플랫폼 노동과는 달리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은 기존의 종속된 독립 노동자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김종진, 2020, 300). 플랫폼 노동시장 구조는 노동 특성에 따라 온디맨드 워크(on-demand work)와 크라우드 워크(crowdwork)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전자는 온라인 플랫폼이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권혁 외, 2018;

박나리·김교성, 2020, 9-10; 서정희·백승호, 2017; 이영주, 2021; 황덕순 외, 2016, 7).

사람들은 인터넷 기술을 매개로 여러 가지 상품, 서비스, 지식체계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플랫폼 구조를 설계하고 강화하여 스스로 생산 및 소비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 같은 노동시장 구조화 과정에서 노동활동의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독특한 직업군도 창출되었는데, 공유경제체계에서 각 서비스를 연계하여 관계를 맺게 하는 플랫폼 관리자가 등장한 것이다.

플랫폼 노동시장은 앞서 살펴본 전통적 노동시장과는 다른 형태의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회현상은 이미 인간의 일상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교양지식 함양 과정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새롭게 등장한 이 노동시장 구조가 사람들의 문화,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플랫폼 노동과 이를 구성하는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학술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시장 구조 내 노동자와 자본가 간 관계는 그 변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간 중심적 가치 교육을 회고하게 만든다. 한편 더 나아가 플랫폼 노동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나타나는 문화콘텐츠 서비스 전달의 본질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플랫폼 노동시장 구조에 관한 교양교육은 그 내부의 사업자 간 상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적, 법적 지식의 교육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그 내부 노동자인 클라우드 워커(cloud worker)에 관해서는 이들이 플랫폼을 통한 취업으로 인해 노동법의 틀 밖에서 노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관계와는 다른 제도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플랫폼은 사업자 간 상거래를 매개하므로 직접적인 노동계약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에서의 클라우드 워커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노동자군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개인 도급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이 작업자들은 발주자

의 지휘명령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와는 또 다른 시장 내 지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 대다수가 사회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즉 이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클라우드 워커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플랫폼 노동시장 구조 내 사회적 자본의 안정된 운영 방식은 현재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 후 누구나 그 위치에 설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해당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실질적인 교양지식이 될 수 있다. 또한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경계선이 불분명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소득 상실의 위험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제도 마련 및 현명한 적용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연구는 결국 노동자로서의 인간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게 된다. 플랫폼의 사용자성 문제, 공급자의 노동자성 문제, 노동조합의 권리문제는 향후 정책적 과제임과 동시에 인간 존재의 의미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랫폼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하여 교양교육 분야에서는 산업구조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외에도 규범, 윤리 구조의 학습과 관련한 교양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해당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 내 영리 부문에 있어서는 상업적 기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윤리경영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이민화, 2018).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로 자리 잡은 플랫폼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정보는 사회적 가치와 이윤추구 기능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온라인 시장에서의 수익창출을 위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새롭게 등장한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한 보편적 지식의 함양을 통해 실용적 전문지식 학습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교양교육

의 내용을 틀 지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 산업사회에 대한 초기 논의에서 불평등과 노동자 권리가 주요 연구대상이 되었듯이 이제 이 실용 학문적 논의에서는 인간 중심의 인문학적 가치에 관한 교육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본격적으로 실용 학문과 기초학문이 합쳐지는 새로운 대학교양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시장 관련 대학교양교육 사례는 일반적 고용관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 및 자본 간 관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학습자에게 실제 그들의 삶에 적용되는 실용 학문에 기반을 둔 기초지식 함양에 도움을 주는 교육내용의 전형이라 하겠다.

IV.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와 교양교육의 가치

지금까지 산업화를 거쳐 온 현대사의 시장경제에서 그 학술적 가치를 의심받아온 순수학문 분야가 최근의 노동시장 유연화로 나타난 갖가지 사회적 폐해들로 인해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소위 신(新)자유주의의 강력한 동력은 물질 풍요로움이라는 사회질서의 변화를 야기했지만, 그로 인한 사회불평등의 고착화, 빈익빈부익부 등의 사회질서의 역기능도 함께 초래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간 중심의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학습이 그 학문이 취하는 본연적 의미를 되찾게 되었다.

특히 그러한 인문학적 논의는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사회질서는 노동시장 구조에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와 관련한 일반화된 특성이 고착화된 삶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는 결국 인간보다 자본의 이익 추구 방향에 더 큰 중요성이 부여된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인간소외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인간소외의 본질에서는 자본 축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기제가 매우 크게 작용하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인간에 대한 학습자

의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기업은 신(新)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이미 분절화된 노동계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여러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온라인 플랫폼 노동시장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생산적 노동력의 활용이 유연성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기업의 이익 극대화 논리에 밀려 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박나리·김교성, 2020, 10).

따라서 인간이 생활하는 가장 원초적인 생활환경을 연구하려면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한 실용 학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그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에 기초한 기초학문 영역의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이 두 가지 학문 영역의 가치가 결합한 관계적 성격의 새로운 대학교양교육 내용이 필요한 것이다. 덧붙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더욱 복잡한 형태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기존에 없던 온라인 공간이 생기면서 노동시장 구조는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시장과 같은 새로운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더욱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서로 상반되는 가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경영학적 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본격화된 환경적 변화 속에서 기업은 영리 및 비영리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기업의 생존과 관련한 이윤 창출을 위한 상업적 기회와 확장 CSR, ESG와 같은 공공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결국 기업조직의 경영전략 역시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가치를 어떻게 하나로 연계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 과정을 기업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의 윤리적 경영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의 시장 체제는 한 사회의 기본적인 계급적 위치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지를 사실상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학습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온라인 정보기술의 발달로 자본의 이윤 실현 방식이 다변화되고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더욱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전통적 고용관계에 종속된 노동자가 의식해야 할 위험요소 외에 또 다른 역기능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고용 형태에 있어서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으로의 전환 과정을 양산한 플랫폼 노동시장 구조와 같은 자본주의 질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내 대학의 교양교육은 그러한 시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정치 체제에 대한 학습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정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쳤고, 제도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정치적, 정책적 요인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의 정책은 국가의 정당체제와 같은 내용적 요소와 정부 형태나 조직 등의 제도적 부분, 그리고 정치참여와 사회운동 등의 행위적 측면이 합쳐져서 하나의 실체를 이루게 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시장 구조의 유연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실용 학문 영역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그 실용 학문과 대학교양교육 간 복잡한 관계적 지식의 재생산과 보완적 학습이 대학교육 차원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인접 학문 영역의 교육자 간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더 이상 실용 학문과 응용학문 영역이 노동시장 진입과 같은 그 학문적 목적으로 인해 교양교육 영역에서 무조건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학습자에게로의 효과적인 대학교양지식의 재분배를 위한 학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용 학문적 측면의 대학교양교육은 기존의 이론적 학습이 주가 된 인문학 중심의 교양교과가 실현하지 못한 체험 주도형 교과 학습을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다. 물론 대학교양교육이 추구하는 학문적 이상만큼이나 실제 대학에서 실행되기는 어려운 이 체험교육을 교양강좌에서 실현하려면 정교한 교과과정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이지연, 2013). 실용 학문 영역에 바탕을 둔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가 곧 활동하

게 될 삶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가상적 상황을 통해 지식 전달 과정을 충분히 구조화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 대한 체험을 통해 인간이 노동시장 구조에 편입되기 전 근원적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이 교양지식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유연화 구조로의 적응을 위한 인문학적 가치의 추구는 대학교양교육 영역에서 기존의 실용 학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잘 나타내준다. 대학교양교육 과정에서는 실용 학문이 지닌 직업교육으로서의 기능적 정체성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학교양교육의 내용 구성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관련한 기존 인문학의 교육적 목표와도 일치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시장 구조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그 반대급부로 분배에 관련된 제도적 구조와 권력 관계에 대한 다양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과학기술은 노동시장 구조에 변화를 일으켰는데, 엄밀히 말해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적인 직업구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동의 창출과 소멸 과정은 결국 인간의 혁신적인 의식과 행동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기존의 인문학적 소양교육 내용에서 다루지 못한 시장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융합 가치에 관한 논의는 현재의 노동유연화 구조에서 실용 학문과 대학교양교육의 관계적 가치에 대한 논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노동유연화 구조에서 인간이 물질적 풍요로움과 함께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내부 인식체계 속에서 규범적 가치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지향적 사고체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유연화 구조를 이해, 해석하게 하여 이를 통해 자

신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인간 의식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그것이 바로 실용 학문의 인문학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실용교육은 현재 시장 구조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후 노동 시장에 진출했을 때 지속적으로 응용, 적용하여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의 개발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고력 및 인성 형성 과정이 함께 진행될 때, 진정한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실용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김현정, 2012, 97-98).

현재의 교양교육을 과거의 전통적 교양교육과 비교해 보면 더욱 복잡다단해진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 규범적 가치의 실현을 더욱 지향할 필요가 있는 학문적 목적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노동 시장 유연화로 인해 인간의 삶이 더욱 경쟁적이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 삶의 궁극적 가치, 목적 등에 대한 인간의 사고 활동이 더욱 빈번하고 깊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이 추구하는 진리는 모두 자신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 가치와 진리에 대한 교육은 타인을 설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 산업사회 노동구조와는 다른 시장적 특징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플랫폼 노동시장 구조의 확산 역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노동 영역에서 새로운 지식체계를 구조화하고, 다양한 대안적 가치와 사회규범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규범과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회화 과정의 교육내용을 통해 인간은 자유도가 훨씬 높아진 학습 주제와 범위에 직면해 있으며, 수없는 대체가능성이 부여된 노동시장 영역에서 생존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제 각 대학은 학생들의 졸업 후 노동시장 구조로의 적응을 위한 실용 학문에 기반을 둔 교양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는 실용적 기술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학생들은 교양교육의 모태가 되는 인문학 지식을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배우고 있고,

디지털 언어로 읽고 쓰면서 그 지식체계를 응용하여 자신의 삶에 부합하도록 변형시키고 있다. 소위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은 바로 실용 학문적 지식의 인문학적 가치를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단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인문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자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인문지식 콘텐츠가 사회생활에서 왜 중요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 지식 내용을 정보기술매체를 활용한 인문지식을 통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김현, 2016, 17-18).

본고에서는 주로 노동자로서 생활하게 되는 인간 삶의 영역을 중심으로 실용 학문이 지닌 교양교과로서의 지향적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 교양 교육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원활한 기업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한 노동자의 의식적, 행동적 변화와 복지제도 등은 결국 기업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유연한 혁신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플랫폼 노동시장은 현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 전이지역으로서 존재하며, 인간의 근무방식, 소득, 거래 및 인간관계 등에 다채로운 윤리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향후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경우 시민 개인의 시장적, 사회적 권리는 결국 인권 문제와 연결되며, 이는 국가정책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가치의 원형이 될 수도 있다. 정책이 추구하는 공공성의 가치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감을 얻고, 그들 간 합의가 도출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공존하는 노동유연화 시장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이러한 인본적 가치의 제도적 구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유연화 구조 속에서의 실용 학문과 대학교양교육의 관계적 가치를 재정립할 시기가 되었다. 다양한 시장 내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와 그 내부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교양교육은 결국 인간의 일상적 삶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이제 대학

은 이러한 두 학문체계의 관계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윤리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교양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혁·김희성·성대규, 2018,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미래』, 집문당.
- 김성원, 2012, 「교양교육의 실용성 문제에 관한 재고(再考)」, 『교양교육연구』 제6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43-77.
- 김종진, 2020, 「디지털 플랫폼노동 확산과 위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제125호, 비판사회학회, 296-322.
- 김현, 2016, 「디지털 인문학과 고문헌 자료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50집, 열상고전연구회, 13-38.
- 김현정, 2012,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과서의 본질과 방향」, 『교양교육연구』 제6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79-103.
- 박나리·김교성, 2020,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 완화를 위한 법적 지위 규정 방안」, 『한국사회복지학』 제72권, 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7-31.
- 배을규·윤성일·정재일, 2003,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 방향」, 『고등교육연구』 제14권, 1호, 한국고등교육학회, 1-26.
- 백도형, 2010, 「문화와 언어: 인문교육의 지평」, 『인간·환경·미래』 제4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71-93.
- 서정희·백승호, 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사회』 제56호, 법과사회이론학회, 113-152.
- 손동현, 2002, 「나의 목소리: 대학의 기초교육, 재정립되어야」, 『철학과현실』 제53호, 철학문화연구소, 195-205.
- 송유진, 2009, 「대학 발전의 미래 가치로서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육철학』 제39집, 한국교육철학회, 131-158.
- 양승실·김현진·주경필, 2006,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제9권, 2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5-170.
- 오은주, 2012, 「중소기업에서 요구되는 직업역량과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517-531.
- 이민화, 2018, 『공유 플랫폼 경제로 가는 길』, KCERN.
- 이성원, 2012, 「한국의 인문정책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포럼』 제12

- 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6-49.
- 이영주, 2021, 「플랫폼 노동, 제3의 지위가 해법인가?: 미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제32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5-57.
- 이지연, 2013, 「대학 교양수업의 현장체험학습 활용방안: 통일외식 재고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7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495-521.
- 정기섭·장영수, 2008, 「직업기초능력 재고를 통한 대학생 취업능력 향상 방안: 덕성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5권, 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09-139.
- 최광제·김장원, 2011, 「교양교육과 실용적 글쓰기의 역학관계 연구」, 『서강인문논총』 제31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05-340.
- 황덕순·주진우·최봉, 2016,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 Business-Higher Education Forum, 1995, *Preparing for the Higher-Performance Workplace: A Survey of Corporate Leader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ILO, 2018, *Digital Labou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 Towards Decent Work in the Online World*, ILO.

The Relational Values of Practical Studies and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in a Flexible Labor Market Structure

Park, Bo-Young
(Seoi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direction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to understand Now university liberal arts courses need to include academic content of practical studies that help accurately understand the current labor market structure in the curriculum content because graduates enter the labor market and have to live their own lives in it.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based on practical studies should not only focus on learning job skills but also orient the relational values of thinking together about the meaning of human-centered humanities in various newly forming labor market structures. Liberal arts education to understand the platform labor market structure can be the global impact of the flexible labor market structure. It is a time when a full discussion should be embarked on the need for liberal arts education that includes post-modern value which is the connection of practical studies and basic studies.

Keyword ● flexible labor market, practical studies, humanities,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relational values

■ 논문투고일 : 2024. 05. 24. ■ 심사완료일 : 2024. 06. 05. ■ 게재확정일 : 2024. 06. 06.